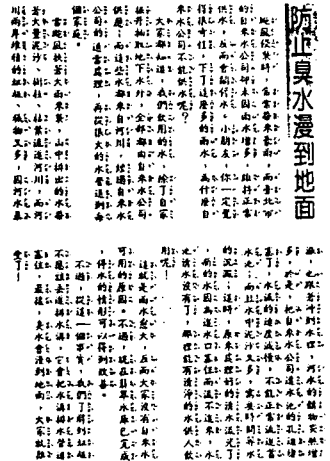


만화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킨다

대만은 자국의 「環境保全」에 대한 정책을 「行政院環境保護署」(우리나라의 환경청에 해당)가 담당하고 있다.

다음의 「環保漫畫手冊」은 同國의 環境保護署가 발행한 것을 게재한다. < 편집자 註 >



오수가 지면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태풍이 침습할 때는 항상 호우를 동반하여 대북시의 수도공사는 빗물의 증가로 정상적인 수도물 공급을 못하고 오히려 물의 공급을 끊게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는데 왜 수도공사가 물을 공급할 수 없는지 반드시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가 마시는 물이 가정에서의 자체적인 지하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공사에서 공급해 주는 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즉, 이러한 물은 모두 하천에서 흘러나와 수도공사의 적절한 처리를 거쳐서 다시 아주 거대한 수도관을 통해 매 가정에 보내어집니다.

그 태풍이 큰 비의 내습을 늘 동반하여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빗물은 많은 양의 진흙, 나뭇가지, 쌓인 낙엽 등과 함께 하천에 흘러들어 갑니다. 그리하여 하천의 양안엔 쓰레기 오물더미가 더욱

많아지고, 하천의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고, 하천의 오물은 갑자기 증가하여 수도공사의 저수지로 진입하는 물길도 모두 막아버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물의 흐름의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정상적으로 저수지에 물이 흘러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중의 진흙도 더욱 많아져 물의 침전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에, 원래 정화처리된 맑은 물은 모두 흘러 나가서 저수지에는 맑은 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들이 마실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빗물이 많아질수록 도리어 모두들 수도물을 사용할 수 없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취같은 물이 담겨진 댐이 이미 완성했고, 물의 공급이 끊어지는 사정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우리들은 쓰레기를 배수구에 버리지 않아서 그것들이 하수구나 배수관을 막아 최후에는 더러운 물이 서서히 지면으로 스며들어가 우리들을 곤란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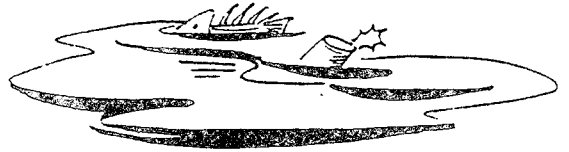
태풍이 침습할 때는 항상 큰비가 내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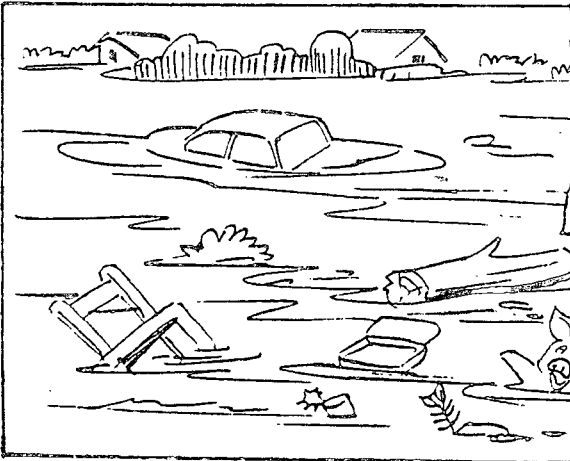
물의

흐름을 막으면

곤란해요



하천의 흐름에 많은 양의 진흙과 모래, 나뭇가지, 낙엽에 떠내려와 낙엽이 떠내려와 하천의 양안에 쌓이고 그 쓰레기, 오물들은 하수도를 막아 왕왕 수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릴수록 도리어 모두가 수도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오물은 갑자기 증가해 수도공사로 들어가 물길을 막아 버립니다.

